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 및 학술행사 인식 연구*

- 포커스 그룹 면담을 중심으로 -

Perceptions of Academic Journals and Scholarly Event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Focus Group Interviews

김수정(Soojung Kim)**, 이종욱(Jongwook Lee)***
정인영(In Yeong Jeong)****, 오상희(Sanghee Oh)*****

< 목 차 >

I. 서론	IV. 분석 결과
II. 관련 연구	V. 결론 및 제언
III. 연구 방법	

요약: 본 연구는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4개 학회(한국문헌정보학회, 한국비블리아학회,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한국정보관리학회)가 협력하여 지원하였으며, 연구의 목적은 4개 학회가 출간·운영하는 학술지 및 학술행사에 대한 연구자들과 실무자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발전방안을 제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4개 학회의 인원들을 비롯하여 학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대학교수, 연구자, 사서 등 총 21명을 대상으로 6회에 걸쳐 포커스 그룹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주요한 학술지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논문 간 품질 차이가 크므로 전반적인 논문의 품질 향상을 위해 현행 심사 및 출판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둘째, 현장 실무자의 논문 투고를 장려하고 학술지에 현장 연구를 적극적으로 게재함으로써 현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학술지들은 주제 범위나 현장성 반영 정도, 국제화 노력 정도 등을 다르게 함으로써 특성화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학술행사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첫째, 대규모의 공동학술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학술적 요뿐만 아니라 친목 도모를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학회별로 특성화된 학술행사를 준비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전문직 단체와의 협력을 피할 수 없다. 셋째, 실무자, 신입 연구자, 대학(원)생 등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주제어: 문헌정보학, 학회지, 학술행사, 인식, 연구자, 실무자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s of researchers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 on scholarly journals and events hosted by the four primary associations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and to suggest improvements. The four associations include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and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nd they co-funded this study. A total of six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21 university professors, researchers, librarians, practitioners, and executive directors of associations who are actively engaged in research and academic activities. Findings presented, first, that the overall process of the journal article review and publishing needs to be improved to enhance the quality of the journals. Second, efforts should be made to increase the visibility of practice by increasing opportunities for information professionals to submit and publish manuscripts with findings from the field. Third, each journal can be specialized by differentiating the scope of journals, providing articles with findings in practice, and facilitating collaborations with scholars abroad or in other fields. To improve scholarly events, first, a large-scale academic conference can be held regularly, co-hosted by the four associations, promoting academic needs and social networking. Third, each association can specialize in academic events in collaboration with professional institutions and agencies. Fourth, the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academic events should be increased for early-career researchers, practitioners, and graduate and undergraduate students.

KEYWORDS: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cademic Journals, Scholarly Events, Perception, Researcher, Information Professional

* 본 연구는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한국문헌정보학회, 한국비블리아학회, 한국정보관리학회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 연구원
(kimsoojung@jbnu.ac.kr / ISNI 0000 0004 6324 634X) (제1저자)

***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jongwook@knu.ac.kr / ISNI 0000 0004 6830 6145) (공동저자)

****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학전공 석사과정(jiy1138@naver.com) (공동저자)

*****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sangheehoh@skku.edu / ISNI 0000 0004 7877 1761) (교신저자)

• 논문접수: 2022년 11월 27일 • 최초심사: 2022년 12월 6일 • 게재확정: 2022년 12월 15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3(4), 319-345, 2022. <http://dx.doi.org/10.16981/kliss.53.4.202212.319>

© Copyright © 2022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I. 서론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1970년에 처음 설립된 한국문헌정보학회(한국도서관학회로 창립, 1991년에 현재 학회명으로 변경)를 시작으로, 1972년 한국비블리아학회, 1974년 한국도서관·정보학회(경북도서관학회로 창립, 1978년 현재 학회명으로 변경), 1984년 한국정보관리학회가 차례로 설립되었다. 4개 학회는 설립과 동시에 한국문헌정보학회지(초기 명칭은 한국도서관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초기 명칭은 한국비블리아),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초기 명칭은 도서관학논집), 정보관리학회지를 출간하기 시작했다. 1970-80년대에는 각 대학에서 문헌정보학과를 중심으로 학회를 설립하고 경쟁적으로 학회지를 발행하기도 했으나, 198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이 4개 학회지의 발행이 연간에서 반연간으로 증가하면서 전국 규모의 학회 학술지로 성장하게 되었다. 4개 학회는 학술지 발간 이외에도 다양한 학술활동을 운영, 지원하였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 공동학술대회를 주최하기도 했다. 현재, 4개 학회 모두 매년 학술지를 3개월 간격으로 4회 발간하고 있으며, 학술강연회, 세미나, 워크숍, 춘계·추계·공동학술발표대회 등을 개최하고, 국내외 유관기관 및 회원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도모하면서 문헌정보학 분야의 학문과 실무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들어, 4개 학회의 문헌정보학 연구자들과 실무자들은 지난 50년간의 문헌정보학회들의 학술지와 학술활동에 대해 고찰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2022년 4월에 열린 “한국비블리아학회, 한국문헌정보학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공동 춘계학술대회”(2022)에서는 “문헌정보학 학술커뮤니케이션의 미래”라는 주제로 문헌정보학 학계의 학회 활동의 현황과 진단, 향후 개선 방안, 학술 출판 현황 및 주요 이슈에 대한 연구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 학술대회에서 발표자들과 토론자들은 지난 20년간 4개 학술지에서 출간한 논문의 저자와 연구 주제에 학술지 간 차이가 거의 없음을 밝히고 매해 이루어지고 있는 학술지 발간과 학술활동에 대한 정보, 데이터, 기록의 축적이 필요함을 논의했다.

이후에 학회 관계자들은 2022년 추계 공동학술대회 프로그램 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춘계학술대회에서 다루었던 주제를 확대하여 문헌정보학 학술지와 학술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 준비위원회는 문헌정보학의 많은 연구자들과 실무자들이 현재 학술지와 학술활동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어떠한 개선을 원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문제에 직면하였다. 이에 4개 학회는 문헌정보학 분야 연구자와 실무자들의 학술지와 학술행사에 대한 인식조사와 발전방안 연구 용역을 함께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본 연구 과제를 지원하였다. 본 연구 과제는 연구대상과 연구방법을 구분하여 2단계로 나누어 수행되었으며 본 논문에서는 1단계로 진행된 포커스그룹 면담(Focus Group Interview, FGI)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보고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문헌정보학 분야 4개 학술지와 학술행사에 대한 학회 운영자

들과 연구자들, 그리고 실무자들의 인식을 파악하고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 연구 질문 1: 문헌정보학 분야 4개 학술지의 품질, 심사방식, 출판방식, 독자층, 학제성, 현장성, 국제화, 특성화에 대해 학회 운영진과 연구자들, 실무자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 연구 질문 2: 문헌정보학 분야 4개 학회의 학술행사(예, 세미나, 워크숍, 학술대회 등)의 개최방식, 특성화, 기획 및 관리, 프로그램 구성, 참여자 유형에 대해 학회 운영진들과 연구자들, 실무자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본 연구의 결과는 지난 50년간 문헌정보학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중심축 역할을 맡아온 4개의 학술지와 학술행사에 대한 가치를 되돌아보고, 현재 문헌정보학 분야의 연구자들과 실무자들의 학회지와 학술행사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미래 학술 커뮤니티의 발전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 분야에 국한하여 수행하였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방법 및 포커스그룹 면담 질문지 등은 추후 다른 학문분야의 학술 커뮤니티 발전을 위한 연구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관련 연구

1. 문헌정보학 학술지와 학술활동 인식 연구

문헌정보학 분야 국내 학술지나 학술행사에 대한 현황, 인식 등에 대한 선행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나 문헌정보학 분야의 연구자·실무자의 학술지 선정 요인,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의 특성(예, 학제성, 현장성, 국제화) 등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었기에 본 연구를 설계하는 데 참고하였다.

연구자들이 자신들의 연구 결과물인 논문을 투고할 학술지를 선정하는 데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 Lee, Yang, Oh(2020)는 선행연구를 통해 학술지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하여 전 세계 문헌정보학 분야 연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학술지 선정요인 다섯 가지 즉, 명성, 독자층, 동료평가, 인프라, 성과를 제시하였다. 이 중에서 특히 '독자층' 요인을 측정하는 지표 변수로는 독자층의 범위, 주요 타깃 독자층, 학술지의 가시성이 있었으며, '동료평가' 요인에는 동료평가 실시 여부, 품질, 심사과정의 공정성이 지표 변수로 포함되었다. 연구 결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은 논문 투고 시 학술지의 동료평가 요인을 가장 중요

하게 고려하며, 다음으로 독자층, 명성, 인프라, 성과 요인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박소윤, 정은경(2013)은 2011년 JCR(Journal Citation Reports)에서 문헌정보학 분야 상위 10종의 학술지를 선정하고, Web of Science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이 10종의 학술지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게재된 1,873편의 논문의 참고문헌 데이터를 분석하여 문헌정보학과와 타 학문 간의 학제성을 조사하였다. 참고문헌 데이터로부터 총 64종의 학술지들의 학문 분야를 분석한 결과, 컴퓨터공학 분야와의 상관성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그 외에 경영학, 심리학, 사회학, 커뮤니케이션, 내과학, 의료정보학, 종합과학 분야와의 상관성이 있음이 밝혀졌다. 이와 유사하게, 이종욱, 박혜린(2016)은 문헌정보학 분야 국제학술지 논문에 나타난 국내 연구자 연구에서 연구자들의 주요 연구 분야가 컴퓨터공학, 경영학, 커뮤니케이션학 등의 학문 분야임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문헌정보학은 실용 학문으로 도서관이나 정보서비스 현장에서의 데이터 수집과 연구 결과의 실무에의 적용을 중요시하는 현장성의 특징을 갖는다. 특히, 학술지의 현장성은 도서관이나 정보센터와 같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들이 얼마나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연구논문을 발표하는가로 결정된다. 신은자(2019a)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에 인용된 학술지 논문에 저자의 소속기관이 도서관인 논문 319편을 확인하였다. 이 중 183편은 문헌정보학 분야 논문으로 전체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출판된 논문 수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수치였으나, 나머지 136편이 의학, 건축학, 재료공학 등의 여러 분야의 논문에 출판되어 있어, 사서들이 현장에서의 경험을 다양한 학문 분야에 적용하여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에서 신은자(2019b)는 한국비블리아학회지에 출판된 논문들의 15% 정도의 저자가 사서임을 밝히고, 비록 전체 저자 집단에서 사서의 비중이 높지는 않았으나 사서가 주저자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대학원 재학 중인 사서 등 다양한 그룹의 사서들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문헌정보학 학술지 발전에 있어 국제화도 빈번하게 거론되는 학술지 특성 중 하나이다.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의 국제화는 국내 연구 설계와 분석, 이론과 실무의 적용 등을 국제적 수준에 맞추어 양질의 논문을 출판하고, 세계적인 영향력을 높이고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동근 외(2014)는 국내 학술지의 국제화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국제학술지 사례조사를 통해 게재 논문 수의 증가, 다양한 국가 소속의 저자, 편집진 구성과 협력, 양질의 논문 투고, 편집진의 전략적 논문 투고 등 학술지 국제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오동근 외(2019)는 본격적인 문헌정보학 분야 국제 학술지 발간과 국제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의 등재를 위해 Web of Science에 등재된 학술지와 등재되지 않은 자매학술지들을 비교·분석했는데 등재지의 경우 자매학술지보다 저자 구성이 다양하고, 피인용 지수가 높으며, 논문의 품질도 전반적으로 우수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2. 타 학문 분야 국내 학술지와 학술행사 인식 연구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연구자와 실무자들의 국내 학술지와 학술행사에 대한 인식 조사는 본 연구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나 수학교육, 무역 및 물류, 심리, 교육 등 타 분야에서는 학술지와 학회활동 개선을 위한 많은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먼저 학술지에 대한 인식 연구로, 수학교육 분야에서는 교수, 박사, 학회활동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9개의 수학교육학, 19개 교육학, 9개의 수학분야 국내 학술지에 대한 친숙도, 평판도, 활용도, 선호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박경미, 2013). 무역 및 물류 분야에서는 국내 학술지 평가를 위한 중요도를 조사하기 위해 총 91개의 학술지 유명도와 명망에 대해 공식을 적용하여 수치화하고, 관련 분야 연구자, 박사학위자, 박사과정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학술지의 중요도를 평가하는 연구를 진행하여 학술지들을 순위화하였다.

학술행사와 관련한 연구로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는 학회의 상담전문가 자격증(상담심리사 1급, 2급)을 보유한 학회원들을 대상으로 학회의 전반적인 활동에 대한 학회원들의 만족도 및 요구 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서영석 외, 2019). 설문문의 내용은 학회의 활동 영역에 따라 (1) 자격 검정 및 자격 관리, (2) 학술 및 연구, (3) 사회적 책임 수행, (4) 전문상담 윤리, (5) 수련 및 교육, (6) 상담심리사 지원, (7) 대외협력 및 홍보, (8) 조직 및 예산 운용, (9) 종합적인 만족도 및 제언 등으로 구분하여 학회 회원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조사했다. 또한, 설문조사와 더불어, 한국상담심리학회의 발전 방안에 대한 학회원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학회의 SWOT, 즉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의 항목에 대해 상담심리사 1급 혹은 2급 자격증을 소지한 10명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면담 방법을 이용하여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였다(안하얀 외, 2019).

교육학회에서는 26개의 분과학회 중 교육행정학, 교원교육학, 교육재정경제학, 교육정치학의 4개 학회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학문공동체로서의 학회의 역할에 대해, (1) 학회원 학회활동 참여 실태, (2) 학회의 역할 및 학회에 대한 인식으로 나누어 학술대회 참여·미참여 이유, 학술대회 발표·미발표 이유, 학술지 논문 투고·미투고 이유, 학술지논문 심사 참여·미참여 이유, 학회 소속감, 만족감, 중요성, 학회 운영의 문제점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수행했다(박상완 외, 2022).

이 외에도 한국기독교교육학회는 학회 소속감이나 자부심, 개선 추구에 대한 의지와 인식, 학회 참여도와 친밀감, 학회 만족도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고(박상진, 김효숙, 2014), 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의 경우, 여성 신진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활동, 학회활동, 학회 지원책, 여성 커뮤니티에 대한 학회 인식 등에 대해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최이숙 외, 2017).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타 학문 분야의 선행연구들은 학술지 및 학회에 대한 인식 조사에 있어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학술지의 주제나 학회 활동 영역을 살펴보는 데는 유용하나 전반적인 학회 운영과 관련된 인식 조사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술지의 경우 중요도를 바탕으로

학술지 우선순위를 매기는 평가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학회 자체의 운영보다는 학회에서 출간·운영하는 학술지와 학술행사에 집중하였으며, 4개 학회 간의 비교보다는 전반적인 인식을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설계하고 수행하였다.

Ⅲ.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 분야 4개 학회 학술지(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에 논문을 출판하였거나 심사에 참여하는 등 학술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면담을 실시하였다. 포커스그룹 면담은 선택된 연구 참여자들이 연구 주제에 대해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함께 토론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조사하여 분석하는 사회과학적 연구방법이다(Powell & Single, 1996). 포커스그룹 면담의 가장 큰 장점은 연구 참여자들이 면담 질문에 대해 자신의 의견에 따라 답을 하는 개별 면담 연구방법과는 달리 다른 참여자들의 의견을 듣고 비슷하거나 다른 다양한 관점에 대한 반응과 의견을 추가로 관찰하여 집단의 의견을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이다(Wildemuth & Jordan, 2009). 본 연구는 특히 문헌정보학 연구자와 실무자 집단의 학회지 논문 게재와 심사, 학술행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조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포커스그룹 면담 연구방법을 채택하여 연구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포커스그룹 면담 대상자는 4개 학회의 임원들을 비롯하여 학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일부 연구자들과 실무자들을 포함하였다. 면담은 2022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Zoom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6회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매회마다 3~4명의 연구자와 실무자들이 참여하였다. 최종적으로 포커스그룹 면담에는 총 21명의 대학 교수들과 유관기관 종사자, 연구원, 사서들이 참여했다. 분석을 위해 면담 전에 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어 동영상으로 녹화하였으며, 면담 내용은 차후에 전사하였다.

포커스그룹 면담은 반구조화된 면담지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면담지 개발에 있어,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와 학술행사 인식에 대해 참고할만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었으나 Lee, Yang, Oh(2020)가 문헌정보학 분야 연구자들의 논문 투고를 위한 학술지 선정 요인을 명성, 독자층, 동료평가, 인프라, 성과 등으로 구분한 연구가 있어서 이들 요인을 면담 질문 개발에 참고하였다.

면담 항목은 크게 4개의 영역으로 (1) 4개 학술지 전반에 대한 인식, (2) 학술지 특성화에 대한 인식, (3) 4개 학회의 학술행사 전반에 대한 인식, (4) 학술행사 특성화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하였다(부록 1 참조). 영역별 질문 내용은 <표 1>과 같다. 포커스그룹 면담 참여자들은 반구조화된 질문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질문의 순서와 상관없이 면담에 참여했으며, 연구 질문에 속하지는 않지만,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언급할 수 있도록 면담을 진행했다.

〈표 1〉 면담 항목

영역	질문 내용
• 4개 학술지 전반에 대한 인식	품질, 출판방식, 심사방식, 독자층, 학제성, 현장성, 국제화에 대한 인식 및 발전방안
• 학술지 특성화에 대한 인식	4개 학술지 간의 차이점, 특성화 필요성, 특성화 방안
• 4개 학회의 학술행사 전반에 대한 인식	개최방식, 기획 및 관리, 프로그램 구성, 참여자 유형에 대한 인식 및 발전방안
• 학술행사 특성화에 대한 인식	4개 학회 간 학술행사들의 차이점, 특성화 필요성, 특성화 방안

면담 내용을 전사한 후에는 NVivo 12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사용한 연구분석 방법은 반복적 비교분석법으로 ‘개방코딩’, ‘범주화’, ‘범주확인’의 단계로 구성된다. 전사된 내용은 면담 질문과 연구 질문에 기반한 코딩과 범주화를 반복하였다. 〈표 1〉의 면담 항목을 기준으로 관련이 있는 면담 내용을 추출하는 1차 코딩이 끝난 후, 코드북을 공유하여 연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토의를 통해 합의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피면담자 간의 유사한 견해를 도출하여 범주화하고 토의를 통해 합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코드북을 완성하였다.

IV. 분석 결과

1. 학술지에 대한 인식 및 발전방안

가. 품질

면담 참여자들은 문헌정보학 분야의 4개 학술지를 타 학문 분야의 학술지나 해외에서 출간되는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들과 비교했을 때 논문의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양호하다는 데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국내 학술지에 발간되는 논문 간의 품질 격차는 다소 큰 편이라고 지적하였다.

개인적으로 [논문별] 품질의 갭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논문은 굉장히 좋은 논문이어서 국문으로 쓰여진 논문이면 우리나라에서만 읽혀지는 것인데 이게 더 많은 visibility(가시성)를 갖고 있으면 좋을 만한 논문들도 있다.... 반면에 어떤 논문은 사실 학술지에 실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수준이 아닐까 하는....

이러한 논문 간의 품질 격차는 무엇보다 심사 및 편집 기간이 촉박하여 저자가 투고한 내용을 심사 단계에서 제대로 수정·보완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즉, 논문 간

완성도의 격차가 발생하고 전체적인 학술지의 품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수정 후 게재' 결과를 받은 논문은 재심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저자가 심사의견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서 수정된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심사자가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하게 되면 실제 심사의견이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확인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게재가 돼요. 그걸 100% 반영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심사자도 역시 한 사람의 연구자이기 때문에 역시 각자 개인의 편견이나 입장이 있으니깐요. 적어도 거기에 대한 저자의 응답을 심사자가 받아보고 이런 입장을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절차가 사실은 더 중요하죠.

이 밖에도 면담 참여자들은 심사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다룬다. 심사제도의 개선 외에도 논문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자와 심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독자층을 확대하여 다양한 시각의 논문이 발표되도록 하자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나. 심사

학술지 편집위원이나 논문 심사에 참여했던 면담 참여자들은 ① 촉박한 심사기간, ② 심사위원 확보의 어려움, ③ 심사 시 외부 압력, ④ 주관적이고 무례한 심사 등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전술한 바와 같이 짧은 심사기간은 논문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러나 편집위원회의 입장에서 볼 때, 학술지가 3개월마다 출판되는 상황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하기 어렵고, 만일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하나의 학술지가 논문 접수일의 일정을 앞으로 당긴다면 투고자들이 논문 접수일이 늦은 다른 학술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학술지의 투고 논문 수가 감소할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심사위원 선정과 관련하여, 한 호에 평균 20개의 논문이 투고된다고 할 때 한 논문마다 3명의 심사위원이 필요하고 총 60명의 심사위원을 수급해야 하는데 학술지가 4종이나 되므로 심사위원 확보가 쉽지 않다는 데에 면담 참여자들은 깊이 공감하였다. 거꾸로 심사자의 입장에서는 심사 요청이 자주 오고 일부 연구자들에게 심사가 몰려서 불만이 있었고, 자신의 전공이나 관심과 무관한 논문들에 대해서도 심사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사례와 같이 논문 심사를 업적으로 인정해주는 방법과 편집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2인 심사제를 채택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첫째, 심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것에 비해 이를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심사를 꺼리는 연구자들도 있으므로 "어떤 논문을 심사했느냐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편의 논문을 심사했다는 이력을 남기고" 업적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둘째, 편집위원장의 권한으로 주제나 형식 면에서 적합하지 않은 논문을 일차적으로 필터링을

하고 논문 심사는 2인만 수행하는 방식이 거론되었다. 그러나 편집위원장이 심사자에게 논문을 넘기기 전에 선행검토를 통해 게재불가판정(desk reject)을 내릴 정도로 권한이 강해지려면 그만큼 편집위원장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개인 주관으로 결정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오히려 권한 강화보다는 책임만 커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현재 2인 심사가 아니라 3인 심사제를 채택한 이유는 연구재단에서 요구하는 바이기도 하고 다수결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2인 심사로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편집위원장이 게재불가 판정을 하는 경우] '내 논문 왜 리젝했어' 라는 항의를 [편집]위원장이 온몸으로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도 이 학계에서 생존하려면 불가능하죠.

무단으로 부적합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처럼 오인되고 그걸 전혀 학계를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 있다고 쳐도 학계 내부에서도 당사자나 주변인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다수결로 3인 심사를 포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한편, 심사 과정에서 외부에서 압력이 들어와서 편집 업무 담당자의 운신의 폭을 좁히고 공정한 심사를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면담 참여자는 이를 “온정주의”라 칭하며 이러한 외부 압력을 연속적으로 거절한다면 나중에 투고 편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가 생긴다고 대답하였다. 이와는 별개로, 심사자가 매우 주관적으로 심사하거나 부적절하고 무례하게 심사 내용을 작성하는 사례도 있었다. 외부의 압력 행사나 주관적이고 무례한 심사를 차단하고 공정한 심사를 수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체적인 심사 기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심사양식을 표준화하는 방안이 개진되었다. 현재 JAMS에서는 심사결과를 입력할 때 점수를 입력하는 항목들이 있지만 심사서와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심사의견서 양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준화하고 항목별로 심사하게 한다면 심사자는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수긍하기 쉬울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그 외에 심사위원들의 주제 분야를 명확하게 관리하고 심사위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는 것도 공정한 심사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다. 출판

면담 참여자들은 4개 학술지에 대해 독자·저자 수, 그리고 출간되고 있는 논문 편수 등을 고려할 때 우리 분야에서 출간되는 학술지의 종수가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4개의 학술지가 모두 계간으로 매 호 15~20개의 논문을 출판하는 상황으로 인해 각 학술지의 편집 업무담당자들의 고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보통 1개월 반 동안 논문 투고부터 시작해서 출판까지 완료해

야 하므로 한 호당 20편 내외의 논문 출간하는 것이 너무 많고 매번 논문 수를 채우는 것이 쉽지 않다고 호소하였다. 게다가 특정 호를 위해 투고된 논문의 수가 많다 하더라도 다음 호로 넘기지 않고 해당 호에 모두 실는 관행이 있어서 짧은 기간 동안 심사·편집이 이루어지고 전체적으로 학술지 논문의 질이 하락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여러 면담 참여자들은 실제 학술지 평가에서 편수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출판 논문 수가 많아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라고 지적하면서, 편수에 연연하지 말고 완성도가 낮은 투고 논문은 다음 호로 넘겨서 처리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호별로 투고 논문 수의 차이가 있고, 반드시 해당 호에 게재하기를 원하는 연구자들도 있어서 현실적으로 논문을 다음 호로 이월하는 것이 어렵다는 반론도 존재하였다.

축박한 출판 기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① 논문 투고 마감기한 엄수, ② 상시투고, ③ 학술지 별로 발행 시기를 다양화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상시투고의 경우, 정해진 기간에만 투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지속적으로 투고를 받고 심사가 이루어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편집위원들의 업무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또한, 학술지 발행 시기와 관련하여, 현재 문헌정보학회지를 제외한 3개 학술지들이 모두 3, 6, 9, 12월에 발간을 하고 있는데 발행 시기를 서로 다르게 할 경우, 투고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심사자에게도 비슷한 시기에 심사가 몰리지 않기 때문에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과연 어떤 학술지가 기존의 발간일을 포기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었다. 대학 교원 연구업적 평가가 주로 6월, 12월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원고를 출판하기에 가장 유리한 달인 3, 6, 9, 12월을 포기하기 어렵고, 실제로 포기하는 학회에게는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견까지도 제시되었다.

보다 본질적인 관점에서, 편집 업무 담당자들의 과중한 출판 업무가 우수한 논문을 게재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투고가 결정된 논문의 교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몇몇 면담 참여자들은 문헌정보학편집인협의회에서 전문적인 외부 교열 업체에 한꺼번에 아웃소싱을 주고 각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논의에 전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전문 인력을 4개 학회가 공동으로 쓴다든지 해서 실제로 이런 편집위원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그 저널의 퀄리티를 높인다든가 아니면 저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기획한다든가. 특성화가 된 후에는 때로는 스페셜 이슈를 구상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그 각각의 저널을 좀 특성을 점점 살려나갈 수 [있도록] ‘클로리컬한 워크(clerical work)’ 같은 거는 좀 다른 곳에 넘긴다던가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라. 독자층

4개 학술지의 독자층에 대한 질문에 현재 4개 학술지들이 명시적으로 독자층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학술활동이 좀 더 다양화되고 활성화되려면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및 방안이 필요하며, 확대해야 할 독자층으로는 ① 실무자, ② 타 학문분야 연구자, ③ 학부생, ④ 해외 연구자들이 거론되었다.

면담 참여자들은 특히 사서 등 현장 실무자들을 독자·저자층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현재 많은 실무자들이 석사학위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소모임을 통해서 연구도 하고 다양한 실험들을 많이 하[고]..... 연구성과물이 있는데 그것들을 어딘가에 발표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없기 때문에” 학술지들은 이러한 전문가를 방치하지 말고 독자·저자로 끌어들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전문직 단체와 협력하고, 학술지 논문들 중 사서들이 참고해볼 만한 논문의 추천목록을 제공하고, 메일링리스트나 기타 사이트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학부생들이 독자층으로 흡수가 되어야 이 학생들이 대학원으로 오게 되고 또 현장에 나가서도 계속해서 학술지와 교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학부생까지도 독자층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학술지의 국제화를 통해 해외 연구자들을 새로운 독자·저자층으로 유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해외 연구자들과의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그 결과를 국내 학술지에 게재하여 저자와 독자층 확대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타 학문분야의 연구자들의 유입은 학제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뒤에 ‘학제성’ 섹션에서 다룬다.

마. 학제성

면담 참여자들은 4개 학술지의 학제성(문헌정보학 분야와 다른 학문과의 관련성)에 대해 대체로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 면담 참여자는 인용분석과 투고자 분석을 수행해 본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가 상당히 폐쇄적이고 학제성이 낮다고 보고하였다. 문헌정보학 분야 논문들이 타 학문 논문을 인용하거나 타 학문분야로부터 피인용 받는 횟수가 적을 뿐 아니라 과거에 비하면 타 학문 분야 연구자들이 문헌정보학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횟수도 감소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융합 학술지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서 이들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굳이 문헌정보학과 학술지에 투고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된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4개 학술지의 학제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였으나 다만, 학제성이 잘못되면 “비빔밥처럼 되어 다른 음식이 돼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런 의견과 더불어 “우리 주제 분야를 확장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야 학자들의 학문 분야가 같이 들어와서

우리 분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헌정보학 중심의 학제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구체적인 학제성 강화 방안으로는 타 학문 분야 연구자들의 ① 논문 투고 장려, ② 논문 심사위원이나 학술행사에 발표자·토론자로 초대, ③ 공동연구 확대 등이 제시되었다. 타 분야 연구자들의 논문 투고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학술지의 주제 범위를 폭넓게 제시하고 원고 분량에도 융통성을 발휘하여 다양한 분야의 논문을 받아들여주는 의견이 있었다. 타 분야 학자와의 공동연구도 학제성 향상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나 현실적으로는 연구자의 인맥에 의존하여 공동연구가 수행되는 경향이 있으며 타 학문 분야 연구자와 연계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한 면담 참여자는 연구자 개인의 공동연구보다는 문헌정보학 학술지들이 다른 분야의 학술지들과 협력하여 여러 학술지에 실린 유사한 주제의 논문들을 가상의 이슈를 만들어서 교류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다른 면담 참여자는 근본적으로 국내 학계에서 문헌정보학의 위상이 높아져야 타 분야와의 협력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얘기하였다. 그는 정치학회나 사회학회에서 뉴스로 활용할 만한 주제를 담은 논문들을 발굴하여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기자들이 이를 취재해서 기사화하는 것과 같이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도 연구결과를 이슈화해서 사회적 뉴스로 연결함으로써 학계에서 존재감을 높이는 작업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 현장성

4대 학술지의 현장성 수준을 묻는 질문에 현장성이 높다고 느끼는 면담 참여자도 있었으나 대부분 현장성이 낮다고 답변하였다.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사례와 같이 이론적 연구보다 현장 논문을 주로 게재하는 특화된 학술지가 한두 종 정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부분 특정한 학술지를 현장연구로 특성화하기보다 기존의 4개 학술지가 현장연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에 찬성하였다. 예를 들어, 현장연구 특집호를 마련한다던가 매 호에 몇 개까지는 현장연구를 게재할 수 있게 한다던가 혹은 현장연구를 위한 사례 연구 섹션을 따로 마련하는 등의 아이디어가 도출되었다. 특히 면담 참여자들은 한 학술지 내에서 섹션을 나눠서 다양한 형태의 논문을 게재하자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우리 분야 학술지에 특히 4대 학술지에서 논문의 유형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형적으로 리서치 아티클(research article)과 케이스 스터디(case study)를 구분해서 필요하다면,리뷰 페이지도 [포함하여]..... 논문의 유형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고, 특히 케이스 스터디 섹션은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한국기록관리학회지에서는 '사례보고'라는 섹션을 통해 짧은 길이의 사례 연구 형식의 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한 실무자는 한국기록관리학회지 편집위원회로부터 직접 요청을 받아서 소속기관에서 디지털 아카이브 프로젝트를 추진한 내용을 논문으로 게재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실제로 실무자들은 이 섹션의 사례들을 업무에 참조하고 있다고 얘기하였다. 다른 학술지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섹션을 구분하여 현장연구를 게재하기 위해서는 이론 중심의 논문을 선호하는 관행을 타파하고, 현장연구에 맞는 적절한 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예컨대, 현장 연구는 학문적 의의보다는 도서관 현장에 실제 얼마큼의 변화가 있었는지 등을 심사 기준에 반영하고, 논문에 '이론적 배경'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등의 형식에 대한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교수님들이나 몇몇 심사위원들이 얘기할 때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케이스 스터디가 이론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 하시면서 게재 불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은 사례 연구(case study)이지만 연구 논문처럼 포장을 해야 하잖아요, 불필요한 노력을 해야 하고 정작 사례 연구에서 답아야 하는, 더 상세하게 내용을 리포트[기술]해야 되는 상황들을 못 담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학술지의 섹션을 구분하여 현장연구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과는 별도로, 사서들 중에는 논문을 작성하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혹은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면담 참여자는 사서들의 소모임에서 “우리가 하는 연구가 정말 가치가 있을까 하는 고민을 우리들끼리 모여서는 판단하기 힘들다”라는 언급하면서 교수가 한두 명 참여해서 지도해 주면 좋을 것이라고 의견을 개진하였고, 다른 면담 참여자도 “현장 사서와 현장의 문제를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싶은 연구자와의 매칭,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서들에게는 논문 업적이 사실상 승진이 도움이 되지 않고, 부담스러운 심사비를 지불하면서까지 기관지가 아닌 학술지에 굳이 게재할 이유가 많지 않다는 언급도 있었다. 따라서 실무자들이 느끼는 논문 게재에 대한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① 학계와 현장 실무자와의 협력 활동을 추진하고, ② 실무자들을 논문 심사위원이나 학회 이사진으로 섭외하여 교류를 확대하고, ③ 이들의 논문게재료를 낮추는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사. 국제화

4개 학술지들의 국제화에 대한 질문에 한 면담 참여자는 국내 연구자들이 해외 학술지에 영문

으로 발표하는 경우에는 국내 현상보다는 세계적인 이슈를 다루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국문으로 작성되는 훌륭한 연구를 해외에 알리는 일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면담 참여자도 과거에는 국내 학자들이 외국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적용하는 연구가 많았으나 이제는 국내 학자들이 우리의 경험을 해외로 소개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으므로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국제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국내 학술지의 실질적인 국제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였다. 먼저 논문의 영문화를 통해 국제 학계에 가시성을 높이고자 하는 방안은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첫째, 영어 심사, 원고료 등 출판절차와 유지 비용에 있어서 부담이 있다. 둘째, 타 분야 학회에서 표나 참고문헌 정도만 영문화한 경우가 있는데 이 정도만으로는 국제화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영문화로 인해 논문의 페이지 수만 늘이고 있다고 비판도 있다. 셋째, 현재 전면적으로 영문으로 출판하고 있는 국내 문헌정보학 학술지의 경우 인용도가 높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한 영문 학술지의 관계자는 해당 학술지가 다른 기준은 충족하였으나 낮은 인용도 때문에 SSCI, SCOPUS 등재 시도가 불발되는 등 학술지로서의 저변 확대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밝혔다. 이와 유사하게 다른 면담 참여자도 오래전에 정보관리학회지에서 격월로 영문으로 출간한 적이 있으나 연구재단에서 인용지수를 학술지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결국 영문 출간을 포기하였다고 얘기하였다. 면담 참여자 중 소수가 논문의 영문화를 통한 국제화 방안의 필요성을 피력하기도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학술지의 언어를 영어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 많은 우려가 표출되었다.

이에 영문화를 통한 학술지의 국제화가 아니라 한국 문헌정보학의 국제화를 위한 장기적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주장도 제기되었다. 예컨대, 국제 공동연구나 국제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연구 등을 수행하여 연구 콘텐츠 자체를 국제화하고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이러한 연구결과를 전 세계에 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 특성화

몇몇 면담 참여자들은 아래 응답과 같이 학술지별로 주제 측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인식하고 이에 따라 논문을 투고할 학술지를 결정하기도 하였다. 대체적으로 정보관리학회지는 정보학 분야, 도서관·정보학회지는 도서관이나 독서 등과 관련된 주제, 문헌정보학회지와 비블리아학회지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예를 든다면 문헌정보학회지 경우에는 정책 파트와 문헌정보학 일반으로 조금 더 범위가 넓은 부분 중심으로 투고를 한다라고 하면은 정보관리학회지는 말 그대로 네트워크라든지 정보 쪽, 그리고 도서관·정보학회지 경우에는 정보서비스 파트와 독서와 관련된 부분들로 조금 집중된다라고 보고 있고,

비블리아학회지 경우가 조금 더 넓은 스펙트럼으로 전체 일반적인 부분들로 가지고 있는 스펙트럼을 주제 분야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러나 대부분의 면담 참여자들은 이러한 학술지 간의 주제 차이가 과거에 보다 뚜렷했으며 최근에는 학술지 간의 차별성이 희미해졌다고 대답하였다. 이는 4개 학술지에 대한 전체 투고 논문 수가 많지 않고, 논문을 투고하는 연구자 풀이 제한적이며, 학술지의 운영 및 출판방식이 거의 동일하다는 것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하여 면담 참여자들은 4개 학술지의 특성화를 위해 ① 주제, ② 국제화, ③ 현장성 측면에서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적인 측면에서 학술지별로 특성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한 면담 참여자들은 학술지별로 주제를 특성화함으로써 문헌정보학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았다.

기본적으로 특성화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왜냐하면, 결국 학회의 전문성은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들이 얼마나 전문적이나에 따라서 평가가 되는데 사실 그렇게 특성화된 학회지 구분이 없다면 우리가 문헌정보학회의 전문성에 좀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성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한 면담 참여자는 정보관리학회지는 정보학을 강화하고 비블리아학회지는 과거에 학교도서관 쪽이 논문이 많이 게재되었으므로 이러한 방향으로 주제를 특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현재 문헌정보학 학술지가 4종에 불과하고 연구자의 풀이 작은 상황에서 주제를 더 이상 세분화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더 나아가 학술지별로 주제 차이가 없는 것이 투고하는 입장에서는 편할 뿐만 아니라 세분화하는 경우 각 학술지가 자기인용만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제기되었다.

그리고 주제적 차별성 외에 국제화나 현장성으로 특성화하는 학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몇몇 면담 참여자들은 문헌정보학회지는 국제화, 도서관·정보학회지와 비블리아학회지는 현장연구로 특성화하기에 유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반면에 학술지 간의 특성화는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으며 미래지향적으로 논의해볼 만한 사항이라는 유보적인 입장도 있었다. 즉, 각 학술지별로 편집의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 논의하다 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특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상 면담 참여자들이 4개 학술지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현황 및 발전방안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학술지에 대한 현황 및 발전방안

영역	현황	발전방안
품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인 학술지 품질은 우수 - 개별 논문 간 품질 격차가 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문 심사에 있어 '수정 후 게재' 논문의 심사의견 반영 여부 확인 - 저자·심사자 인센티브 - 투고자 풀 확대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기간 촉박 - 심사위원 확보 어려움 - 심사 시 외부 압력 - 주관적이고 무례한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기간 연장 (반론: 접수 일찍 마감 시 투고 편수 감소 우려) - 편집위원장의 권한 강화 및 2인 심사제 (반론: 편집위원장의 책임 가중, 3인 다수결 심사제 포기 어려움) - 논문심사 업적 인정 - 심사 기준 가이드라인 및 심사양식 표준화 - 심사위원 주제분야 관리 - 심사위원 비밀 보장
출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지별로 1년에 4호씩 출간 - 편집·출판기간 촉박 - 매호 발행 편수 많음 - 모든 투고된 논문을 해당 호에 게재 - 편집 담당자의 업무가 교열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문 투고 마감 기한 엄수 - 호당 출판 논문 편수 줄이기 - 질이 낮은 논문은 다음 호로 이월 (반론: 매 호 투고 편수의 편차가 있음) - 상시투고 (반론: 편집 업무 담당자의 부담 증가) - 학술지별 발행시기 조정 (반론: 3, 6, 9, 12월 발행시기 포기 쉽지 않음) - 교열 업무는 아웃소싱하고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업무에 전념
독자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자층이 제한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자들을 독자층으로 확대 - 타 분야 연구자들을 독자층으로 확대 - 학생들을 독자층으로 확대
학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학문과의 학제성이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지 주제 범위 확대, 논문 길이에 융통성 발휘, 타 분야 연구자를 학술지 심사위원이나 학술행사에 발표자/토론자로 초대, 공동연구 확대, 타 분야 학술지와 협력하여 특정 주제에 대한 가상 이슈 출간하고 교류 확대 - 학계에서 문헌정보학과의 위상을 높임: 예, 연구결과를 사회적 뉴스로 연결
현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연구 논문이 게재되기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연구에 특화된 학술지 개발 - 현장연구 논문 게재 활성화: 현장연구를 위한 별도의 섹션 마련, 특집호 발간, 매 호마다 현장연구 게재 - 현장 실무자와 학계의 공동연구 확대 - 실무자를 학회 이사진이나 학술지 심사위원으로 섭외 - 실무자의 논문게재료 할인
국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화 수준이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문의 영문화 (반론: 출판 비용 높음, 인용도 낮음) - 국제 공동연구 확대 - 국제적 데이터에 기반한 연구 확대 -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통한 국내 연구의 가시성 향상
특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지별 차별성이 거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별로 특성화 (반론: 주제 세분화 어렵고, 학술지의 자기인용도가 높아짐, 투고자에게 불리함) - 현장성으로 특성화 - 국제화로 특성화

2. 학술활동에 대한 인식 및 발전방안

가. 개최방식

대부분의 면담 참여자들은 문헌정보학 연구자의 수에 비해 학술행사의 수가 많다고 대답하였다. 1년에 4개 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행사의 절대적인 횟수가 많은 것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실제로 참여하여 활동하는 연구자의 숫자가 적어서 발표자가 중복되고, 학회별로 차별성도 거의 없어서 비슷한 행사가 반복되는 것에 피로감을 느끼는 것이 주요한 문제로 파악되었다.

그리하여 향후 학술대회의 발전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 1년 또는 2년에 1번 모든 학회가 참여하는 대규모의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자는 의견이 강하게 제시되었다. 여러 면담 참여자들은 해외의 ASIS&T나 국내 한국콘텐츠학회, 대한화학회 등 타 학회의 사례를 들면서 우리 분야에서도 연구자, 실무자, 학생, 유관기관 등이 총체적으로 참여하는 하나의 대표적인 학술대회가 생긴다면 “1년에 한 번은 가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더 집중된 효과”가 생길 것이라 대답하였다. 면담 참여자들은 이러한 공동학술대회를 “축제”, “잔치”, “파티”로 표현하면서 학술적인 목적을 위한 프로그램과 친목이나 문화탐방 등 다소 “캐주얼한” 프로그램이 어우러지는 크고 풍성한 학술대회를 기원하였다.

구체적인 공동학술대회 개최 방안으로는, 첫째, 아래 응답과 같이 공통 주제에 대한 발표 외에 각 주제별로 관심 있는 연구자들끼리 깊이 있는 학술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학술대회 일정 하루 동안 혹은 2~3일 동안 공동주제 세션과 주제별 세션을 별도로 운영하여 참여자들이 본인이 원하는 주제를 선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첫 번째 프로그램 위원회가 그 해의 주제로 생각하는 것들을 첫날에 이렇게 뭔가 큰 테마로 발표를 하고 둘째 날은 각 분과로 해서 각 소학회들, 주제 분야 학회들이 그 분야로 또 발표를 하는 거고, 마지막 날은 뭔가 워크숍 형태로 교육도 이루어진다거나 이런 형태들도 국내에서도 실제로 가능한 한 것 같거든요.

둘째, 개최장소를 서울 외에 지방까지 다양화하여 “장소로서도 좀 가고 싶은 매력적인 그런 지역을 잘 골라서” 사람들을 불러모을 수 있는 학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아래 면담 참여자는 공동학술대회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열리게 되면 해당 지역의 도서관 등을 투어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조금 잔치가 되는 그리고 가서 쉽도 돼요, 그리고 학회를 꼭 서울에서 인 서울 교통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대표도서관도 되게 많잖아요, 부산 국회도서관도 만들어졌잖아요, 사서들이 도서관 보고 싶어서라도, IFLA도 도서관 투어,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셋째, 개최시기와 관련하여 현재 학술행사가 주로 5, 6월, 11, 12월에 집중되어 있어서 이를 분산하는 방안, 도서관대회나 국제학술대회가 열리는 시기에 맞춰 연이어 개최하는 방안, 우리 학계에 의미 있는 날짜를 정하여 그 날짜에 개최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나. 특성화

면담 참여자들은 현재 정보관리학회는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도서관·정보학회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학회별로 서로 다른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각 학회의 학술행사 별로 특성화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데 동의하였다. 최근 열린 공동학술대회에 대해서는 행사를 준비·운영하는 학회의 입장에서 비용과 업무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공동학술대회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공동학술대회는 모두의 관심사인 일반적인 주제를 다루게 되어 각 학회의 다양성이나 전문성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단점도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앞 절에서 제안된 대규모의 공동학술대회를 정례화하는 것과 별개로 각 학회들이 자체적으로 차별성있는 학술행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한 면담 참여자는 어느 학회에서 개최한 “헬스 인포매틱스(health informatics)”라는 주제의 워크숍에 참여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각 학회별로 특정 주제, 이슈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이 교류하면서 심화된 논의를 할 수 있는 소규모의 워크숍이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 다른 면담 참여자는 아래와 같이 각 학회가 서로 다른 전문직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특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정보관리학회는 아무래도 전문도서관 쪽과 더 협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테고 대학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 쪽은 아무래도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정보학이나 역시 비블리아학회가 역량들이 있으실 거죠. 그런 쪽으로 하면서 주제의 특성화가 전문직 단체와 연결되는 방식으로 특성화하는 것들은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각 학회가 개최하는 학술행사들의 특성화가 이루어진다면 연구자들의 참여가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학회의 임원진들도 전문성을 쌓을 수 있고 소속감도 커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다. 기획 및 관리

학술행사의 기획 및 관리와 관련된 이슈로는 ① 인력 부족, ② 발표자 섭외, ③ 자료집 관리, ④ 유관기관과의 협력, ⑤ 국제화 등으로 나타났다. 첫째, 준비위원회가 겪는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소수의 회장단 혹은 편집위원회 인원들이 학술행사를 기획·관리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을 뿐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데 제한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학회별로 새로운 회장단이

만들어질 때 임의대로 임원진을 구성하고 있고, 많은 임원들이 이름만 올려져 있을 뿐 학술행사 기획 업무 등에는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관행과도 관련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자·실무자가 학회에 가입할 때 본인이 관심 있는 SIG 모임이나 주제를 선택하여 등록하게 하고, 해당 SIG 모임에서 회장단 임기와 상관없이 연속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하며, 학술행사 기획 시 SIG 모임별로 관련 주제를 발굴하고 섭의를 맡게 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둘째, 통상적으로 학술대회 준비위원회에서는 주제를 미리 선정하고 발표자들을 직접 섭외하는 절차를 따르고 있는데 매번 발표자를 확보하는 일이 매우 어렵고 발표자가 다양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기한을 충분히 두고 미리 주제를 공고하여 발표 신청자를 모집하는 방식도 제안되었다.

셋째, 학술대회 자료가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학회 홈페이지에 탑재되지 않는 경우와 미리 배포되는 자료집의 내용과 실제 발표 내용이 차이가 있는 경우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학술대회가 끝난 후 최종 버전의 자료집을 학회 홈페이지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배포·관리하고, 비대면 발표의 경우 발표자의 동의를 받아 동영상까지 서비스하자는 아이디어도 제시되었다.

넷째, 그동안 학술대회들이 주로 KISTI에 의존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KERIS,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 한국전문도서관협회의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공동추진하거나 지원을 받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다섯째, 국제적인 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iConferenc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sia-Pacific Digital Libraries 등 국제학술대회의 공동 개최, 패러렐 세션(parallel session)으로 개최, 혹은 국제 학술대회 뒤에 연이어 국내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방법 등이 제안되었다.

라. 프로그램 구성

학술행사 프로그램의 발전방안에 대한 질문에 많은 면담 참여자들은 아래와 같이 현재 학술행사들이 연구발표를 듣는 것 외에 다른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 정도의 발표는 어디 가서 유튜브에서 들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글로 읽어도 되는... 그런데 교통비를 내고 하루를 투자해서 갈 만한 그런 파티가, 그 파티라고 해서 좀 그렇지만은 학술 활동이 별겁니까 친목이예요,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동안에 아이디어도 얻고 이렇게 교류도 되고 하는 건데 무조건 공부하러 간다. 공부하러 안 가요, 유튜브가 훨씬 나아요.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학술행사가 진행되면서 연구발표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거에서처럼 연구자들 간의 친목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추가 혹은 강화되어야 할 프로그램으로는 ① 특정한 주제나 이슈에 대해 관심 있는 연구

자들의 심화된 연구 교류를 위한 SIG 모임, ② 신입 연구자들을 소개하고 기존 교수들과 교류할 수 있는 세션, ③ 학생 공모전이나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산할 수 있는 세션, ④ 포스터 세션, ⑤ 튜토리얼 세션 등이 언급되었고, 전술한 바와 같이 ⑥ 도서관·기록관 투어, 문화탐방 등에 대한 요구도 확인되었다.

마. 참여자 유형

면담 참여자들은 학술행사 활성화를 위해 실무자, 신입 연구자, 대학원생, 학부생 등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을 학회로 유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특히 현장성 강화를 위해 실무자를 적극적으로 학술행사에 참여시키는 방안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 실무자는 과거 학술대회에 참여했던 경험을 거론하면서 “대학원생들과 연구자들을 위한 발표 자리 이상은 아니었던 느낌”을 받았다고 토로하였고, 다른 실무자들도 유사하게 학술행사 참여자의 범위가 사실상 교수와 대학원생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실무자들의 현장 고민을 나누고 연구자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였다. 실무자들이 학술행사에 활발하게 참여를 하지 않는 이유로는 도서관대회가 더 중요한 행사로 인식되고 있고, 학술대회 주제가 현장과 거리가 멀고, 학술대회 참여가 교육 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등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실무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① 학술대회를 도서관대회 다음날에 연이어 개최함으로써 참여를 용이하게 하고, ② 도서관 유형별 대표기관이나 다른 유관기관 세션 혹은 현장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세션을 마련하고, ③ 학술대회 참여를 교육시수로 인정하는 방식 등이 제안되었다. 아래와 같이 학술대회를 사서들의 발표로만 채우고 교수들이 방청객으로 듣고 질문을 하는 다소 획기적인 아이디어도 제시되었다.

1년에 두 번 하는 것 중에 하나는 현장 사서들을 한번 꼭 채워보면서 교수들이 좀 뒤에서 들으면서 각종 질문도 좀 하거나 아니면 같이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KERIS에서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한다면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학회 쪽에서 담아낼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 외에 대학원생들에게 등록비를 할인해 주는 방안, 학부생들을 단체로 학술대회에 견학·참관시키는 방안, 신입 교수나 신입 실무자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서 참여층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상의 학술행사에 대한 현황 인식과 발전방안을 요약하면 <표 3>과 같다.

〈표 3〉 학술행사에 대한 현황 및 발전방안

영역	현황	발전방안
개최방식	- 개최 횟수가 많음	- 대규모의 공동학술대회 정례화: 공동주제 세션과 주제별 세션 운영, 개최장소의 다양화, 개최 시기의 조정
특성화	- 학회별로 학술행사가 특성화되어 있지 않음 - 공동학술대회가 일반적인 주제만을 다룸	- 각 학회별로 특성화된 학술행사 진행: 주제별로 특성화한 워크숍, 세미나 등 소규모 학술행사 진행 - 각 학회가 전문직 단체와 협력하여 특성화
기획 및 관리	- 기획·관리 인력 부족 - 발표자 섭외 어려움 - 자료집 관리 잘 안 됨, 자료집과 발표 내용 간 차이 있음 - KISTI에 대한 의존도 높음 - 국제 교류가 적음	- 학회 임원 구성 방식 변경 - 주제를 미리 공고하고 발표자 신청받기 -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버전의 자료집 배포, 비대면 발표 시 동영상 자료도 배포 -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지원 고려 - 국제학술대회 공동 개최, 패러렐 세션 개최 등
프로그램 구성	- 연구발표 외에 프로그램 부족	- Special Interest Group (SIG) 모임 운영 - 신입연구자 세션 운영 - 학생 공모전 등 학생 참여 프로그램 운영 - 포스터, 튜토리얼 세션 운영 - 도서관·기록관 투어, 문화탐방 운영
참여자 유형	- 주로 교수와 학생 참여	- 실무자 참여 기회 확대: 도서관대회와 연이어 학술대회 개최, 유관기관 세션, 현장 문제 토론 세션, 학술대회 참여를 교육 시수로 인정 - 신입 연구자 참여 확대 - 대학(원)생 참여 확대: 등록비 할인, 학부생 단체 학술대회 참관

V. 결론 및 제언

문헌정보학에서는 학술정보의 생성과 평가, 유통, 이용, 보존 등의 학술 커뮤니케이션 전반을 아우르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학술지와 학술행사는 이러한 학술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새롭게 생성되는 학술정보와 지식을 배포하고 공유하여 학문의 발전을 이끄는 주요 메커니즘이다. 이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은 학술지의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한 공급자와 수요자 측면에서의 심사, 출판, 유통, 이용, 평가, 국제화 등에 관한 다각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문헌정보학 분야 주요 학회의 학술지와 학술행사의 현황을 파악하고 발전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국내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발전과 더불어 타 학문 분야 학술지와 학술활동의 개선점 도출에 있어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 분야 학계 및 현장 전문가 21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면담을 실시하여 학술지와 학술행사의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학회 차원의 학술지 발전방안을 1) 투고 및 모집, 2) 심사, 3) 출판, 4) 유통의 단계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투고 및 모집 단계에서 논문 투고자의 범위가 확대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더욱 많은 현장 전문가와 타 학문 분야 연구자의 논문 투고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술지의 내용과 형식, 절차에 대한 유연성 확보 즉, 연구 성격이나 주제를 고려한 분량이나 심사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장 전문가의 논문 투고 및 게재를 장려하는 학회 차원의 노력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투고 원고의 전문성을 높이고 더욱 많은 고정 독자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술지 간 특성화가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학술지의 주제 범위나 현장성 반영 정도, 국제화 노력 정도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심사 단계에서는 연구의 내용이나 성격을 고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위원 확보와 관리가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현장 전문가와 타 분야 연구자를 심사에 참여시키는 것은 추후 이들의 논문 투고를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심사자들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심사를 수행하도록 체계적인 심사기준을 제공하고, 넉넉한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들의 의견이 원고 수정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를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출판 단계에서는 더욱 완성도 높은 양질의 원고가 출판될 수 있도록 최종 원고의 편집과 출판에 필요한 적정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원고 투고가 마감일 이전에 이루어지고, 편집과 출판 일정에 맞게 심사 절차와 원고 수정 작업이 완료되어야 한다. 즉, 학술지 출판 절차와 일정을 체계화하여 이에 준수하지 않는 원고는 다음 호로 이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가적으로 기존 편집위원회 업무 가운데 원고의 교정이나 교열과 같은 형식에 대한 검토는 외부 기관에 공동 위탁하면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학술행사의 활성화를 위한 학회 차원의 업무를 개최 방식, 기획 및 운영, 협력 및 관리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최 방식으로는 문헌정보학 분야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대규모의 공동학술대회와 학회별로 특성화된 학술대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에 대표적인 학술행사가 부재한 가운데 공동학술대회를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참여자의 학술적 역량을 증진하고 친목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개최장소와 시기를 결정할 때는 참여자의 상황이나 요구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별 학회가 개최하는 학술대회의 경우 현재와 비교하여 더욱 밀도 있는 교류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제나 형식 부분의 특성화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기획 및 운영에 있어 공동학술대회는 여러 구성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포괄적인 주제 아래 SIG, 현장 문제를 논의하는 세션, 신입 연구자나 학생들을 위한 세션 등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학술적 요구뿐만 아니라 친목 도모를 위한 프로그램 진행도 중요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학회 구성원들에게 최소 6개월 전에는 안내하여 세션별 테마를 설정하고, 발표 논문을 모집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술대회 준비위원회를 전년도 학술대회 직후부터 발족하여 차년도 학술대회를 준비하여야 한다.

협력 및 관리와 관련하여 공동학술대회나 학회별 학술대회를 기획에 있어 전문성과 현장성,

학제성을 강화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유관 단체와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각 학회는 특성화된 학술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국내·외 전문단체와의 협력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매년 개최하는 행사 정보는 웹사이트를 통해 업데이트되어야 하며, 특히 자료집은 체계적으로 아카이빙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학회 임원진 구성 시, 임원의 관심 분야를 고려하여 회장단의 임기와 관계없이 연속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주요 학회는 지난 50여년 간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문헌정보학 연구와 우리나라 학술 생태계 발전에 기여해왔다. 시대가 흐르면서 문헌정보학 연구의 주제나 방법이 확장되고 있으며, 세부 주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또한, 연구 결과의 이론적 의의는 물론, 사회적, 실무적 의의도 더욱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 문헌정보학 학술 생태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학회 학술지 간행과 학술행사 운영에 있어 내실화를 도모하고 외연을 확대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학회가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관련 연구자와 실무자의 참여를 극대화할 때 문헌정보학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4개 학회가 협력하여 수행된 본 연구가 이러한 노력의 어려운 첫 발걸음이 되길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박경미 (2013). 수학교육학과 수학 연구자들의 학술지 선호 경향에 대한 조사 연구. 수학교육학연구, 23(4), 423-448.
- 박상완, 김민조, 박소영, 장우천 (2022). 학문공동체로서 학회의 역할과 참여 실태 분석: 교육행정·교원교육·교육재경·교육정치학회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40(1), 343-371.
- 박상진, 김효숙 (2014). 한국기독교교육학회의 학문공동체성 함양을 위한 연구. 기독교교육 논총, 38, 227-253.
- 박소윤, 정은경 (2013). 학제성과 연구 영향력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를 대상으로. 정보관리학회지, 30(4), 7-29.
- 서영석, 안수정, 안하얀, 이소연 (2019). 한국상담심리학회 현황 및 발전방안에 대한 학회원들의 인식 I : 학회 제반 활동에 대한 학회원들의 만족도 및 요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4), 1365-1405.
- 신은자 (2019a). 사서와 타학문분야 연구팀의 공동 연구 및 출판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3(3), 143-159.
- 신은자 (2019b). 사서의 문헌정보학분야 학술논문 출판 활동 현황 - 한국비블리아학회지를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0(4), 51-64.

- 안하얀, 이소연, 서영석, 안수정 (2019). 한국상담심리학회 현황 및 발전방안에 대한 학회원들의 인식 II : 포커스그룹 인터뷰 및 SWOT 분석 결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4), 1407-1439.
- 오동근, 양기덕, 여지숙, 박상후 (2018). 국제 학술지 발간 개선을 위한 자매학술지의 분석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3), 219-240.
- 오동근, 최선희, 이용구, 여지숙, 이정규 (2014). 학술지의 국제화를 위한 운영 및 발전방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4), 159-178.
- 이종욱, 박혜린 (2016). 문헌정보학 분야 국제 학술지 논문 계량분석을 통한 국내 연구자 특성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1), 217-242.
- 최이숙, 김세은, 김은영, 한선, 김미희 (2017). 고립되고 불안한 미생들과 학문공동체로서의 학회: 여성신진연구자들의 연구 및 학회활동과 학회의 길 찾기. 미디어, 젠더 & 문화, 32(2), 43-89.
- 홍의, 김영민 (2015). 국내 무역 및 물류 관련 학술지의 중요도 평가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40(1), 261-284.
- Lee, J., Yang, K., & Oh, D.-G. (2020). Factors influencing the choice of a publication venue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Learned Publishing, 33(3), 323-332. <https://doi.org/10.1002/leap.1300>
- Wildemuth, B. M. & Jordan, M. W. (2009). Focus groups. Applications of Social Research Methods to Questions in Information and Library Science, 242-255.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An, Ha Yan, Rhie, So Yeon, Seo, Young Seok, & An, Soo Jung (2019). Members' perceptions of the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s current status and development plan II : results of focus group interviews and SWOT analysi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31(4), 1407-1439.
- Choi, Yisook, Kim, Sae-Eun, Kim, Eun-Young, Han, Seon, & Kim, Mihee (2017). Towards a scholarly community: rising women researchers and the future of academia. Media, Gender & Culture, 32(2), 43-89.
- Hong, Eui & Kim, Young-Min (2015). Assessing international trade and logistics journals: researcher perceptions. Korea Trade Review, 40(1), 261-284.
- Lee, Jongwook & Bak, Hyerin (2016). Characteristics of Korean researchers through

- bibliometric analysis of papers published in international LIS journal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7(1), 217-242.
- Oh, Dong-Geun, Choi, Seon-Heui, Lee, Yong-Gu, Yeo, Ji-Sook, & Lee, Jeong-Gyu (2014). A study on the operation method for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academic journal.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5(4), 159-178.
- Oh, Dong-Gen, Yang, Kiduk, Yeo, Ji-Suk, & Park, Sang-Hoo (2018). An analysis of sister journal characteristics for enhancing the publication of international journal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9(3), 219-240.
- Park, Soyeon & Chung, Eunkyung (2013). Examin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disciplinarity and research impact with analyzing the journal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field.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0(4), 7-29.
- Park, Kyungmee (2013). A survey research of mathematics educators' and mathematicians' preference on journals.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in Mathematics*, 23(4), 423-448.
- Park, Sang Jin & Kim, Hyo Sook (2014). A study on promoting the identity as an academic community of KSCRE.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38, 227-253.
- Park, Sang-wan, Kim, Min Jo, Park, So-Young, & Jang, Woo-Chun (2022). An analysis on the role and participation of the academic society as an academic community. *The Korean Educational Administration Society*, 40(1), 343-371.
- Seo, Young Seok, An, Soo Jung, An, Ha Yan, & Rhie, So Yeon (2019). Members' perceptions of the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s current status and development plan I: members' satisfaction and needs for the association's various activitie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31(4), 1365-1405.
- Shin, Eun-Ja (2019a). Collaborative research and publishing of librarians and research teams from other academic field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3(3), 143-159.
- Shin, Eun-Ja (2019b). Librarians' contribution for publishing in LIS journal: in the case of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0(4), 51-64.

[부록 1] 포커스 그룹 면담지

Part 1. 학술지에 대한 인식

1) 4개 학술지 전반에 대한 인식

- 4개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논문의 **전반적인 품질**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품질을 높이기 위해 보완해야 하는 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학술지 논문에 대한 **출판 방식**(예. 출판 논문의 수, 절차)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출판 관련하여 보완해야 하는 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학술지 논문에 대한 **심사 방식**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사 관련하여 보완해야 하는 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학술지의 **독자층**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독자층 확대를 위해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학술지는 **학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합니까?
- 학술지에 수록되는 **연구의 현장성** 정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합니까?
- 학술지의 **국제화 수준**은 어떠합니까? 국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면 국제화를 위해 어떤 노력이 있어야 합니까? 불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학술지 발전을 위해 **부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2) 학술지 특성화에 대한 인식

- 학술지 운영·출판 방식 또는 학술지에 수록되는 논문의 내용·형식에 있어 **4개 학술지 간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4개 학술지 간 **특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특성화해야 합니까? 필요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Part 2. 학회의 학술활동에 대한 인식

1) 4개 학회의 학술활동 전반에 대한 인식

- 학회에서 운영하는 학술활동(예, 학술대회, 각종 워크숍, 세미나)은 학술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고, 상호 간의 친목을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분야 학회의 학술활동은 이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학회 차원에서 학술활동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방식**(예, 주제 선정, 발표논문 모집)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준비와 관련하여 보완해야 하는 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학술활동의 **프로그램 구성**(예, 기조강연, 논문/포스터 발표)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추가되어야 합니까?
- 학술활동의 **참여자 유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참여자 수나 참여자 유형의 확대를 위해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합니까?
- 학술활동의 **자료집 제작이나 배포 방식**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료집 제작이나 유통과 관련하여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합니까?
- 학술활동의 **개최 방식**(예, 개최장소, 일정, 비용)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최 방식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하는 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학술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부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2) 4개 학회 학술활동의 특성화에 대한 인식

- **학회 간 학술활동에 차이점**(예, 정보관리학회 하계학술대회, 한국도서관·정보학회 국제학술대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학회 학술활동에 **특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특성화해야 합니까? 필요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학회 간 **공동 학술활동**(예, 공동 학술대회 개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